

여성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김복순*

I. 머리말

2012년 4월까지 고용은 전년동기대비 470천 명이 증가하는 등 예상했던 것보다 큰 폭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당분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2012년 1/4분기 우리 경제의 성장은 전년동기대비 2.8%에 그쳐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세계재정위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제조업의 성장세 둔화가 주요 원인이다. 덧붙여 OECD는 물론 국내 유수의 기관들도 2012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011년 연말에 발표했던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정하여 발표하고 있다(OECD 3.8%→3.5%, 한국은행 3.7%→3.5%, 한국개발연구원 3.8→3.6%). 이처럼 최근 우리 경제에는 성장과 고용의 괴리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고용률을 통해 보면 전 연령계층에서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50대 연령층의 고용률은 71.6%에 달해 전년대비 0.6%p 증가하는 등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고용증가세는 50세 연령층에서 주도하고 있다. 2012년 1/4분기 고용률도 58.3%를 기록하는 등 고용지표가 보여주는 노동시장의 흐름은 경기와 다르게 상당히 좋아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금융위기가 불러들인 2008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성장세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고용 속내를 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청년, 고령층과 더불어 고용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고용위기 때마다 일자리 정책 수립 시 우선적으로 고려·지원해 왔던 계층이다. 최근 고용호조세와 더불어 여성의 고용증가폭도 확대되고 있어 이들의 고용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중간임금계층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세계금융위기 때와 비교하여 여성 일자리의 변화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eesaram@kli.re.kr).

증가하고 있는 여성의 일자리가 께찮은 일자리인지 여부는 향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수립 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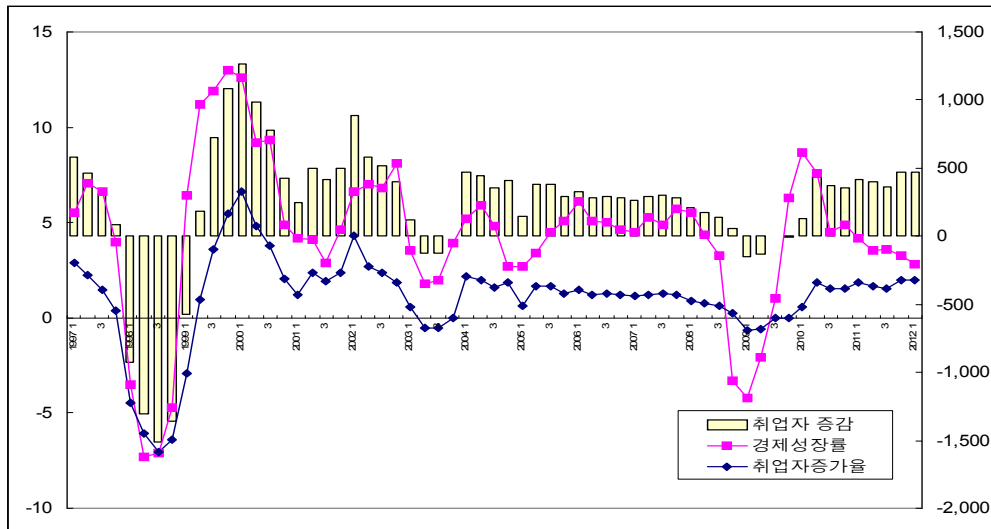
II. 여성의 고용구조

2011년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은 10,416천 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41.5%에 해당한다. 여성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은 49.7%로 전년대비 0.2%p 증가했으나 세계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과 더불어 고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1/4분기를 기점으로 경제성장률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4분기 동안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467천 명이 증가하였다. 더불어 여성의 일자리도 225천 개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2012년 4월까지 지속되고 있으나 노동시장 핵심계층인 30~40대 연령층에서의 고용이 다소 감소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1]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1.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변화

최근 고용호조 속에서 여성의 고용률도 2011년 48.1%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예상했던 것보다 큰 고용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2012년 4월까지의 여성 고용률 또한 세계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50대 연령층의 여성 고용률은 57.3%를 기록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또한 50세 이상 중고령층에서는 취업비중도 20%를 넘어섰으며 2012년 4월까지의 21.0%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노동시장의 핵심연령층인 30~40대 연령층에서의 고용률은 다소 정체되어 있으며, 특히 30대 여성의 고용률은 세계금융위기 이전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4월까지의 여성 고용률 상승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기여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고용률을 연령별로 요인분해해 본 결과, 20대 청년층에서의 최근 고용률 상승은 주로 25~29세 연령층에서의 인구비중의 감소와 더불어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에 기인하고 있으며, 최근 고용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50대 연령층에서는 인구비중의 증가가 두드러진 가운데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가 고용률 상승에 큰 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령별 고용률 추이

(단위: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2010	2011	2007. 1~4	2008. 1~4	2009. 1~4	2010. 1~4	2011. 1~4	2012. 1~4
전체	전체	59.8	59.5	58.6	58.7	59.1	59.0	58.9	57.8	57.5	57.9	58.3
	20세 미만	6.6	5.9	5.4	6.1	6.8	6.9	6.4	5.3	6.0	7.0	7.0
	20~29세	60.0	59.1	58.2	58.2	58.5	59.9	59.2	57.5	57.8	57.6	58.2
	30~39세	72.9	72.9	71.3	72.0	72.2	72.3	72.8	71.0	71.4	71.7	71.9
	40~49세	78.3	78.4	77.7	77.8	78.4	77.7	77.7	77.1	76.9	77.6	77.7
	50~59세	69.7	70.6	70.3	70.9	71.6	67.7	69.2	69.3	69.5	70.1	71.2
	60세 이상	38.1	37.2	36.7	36.0	36.5	35.9	35.0	34.2	32.8	33.4	34.3
여성	전체	48.9	48.7	47.7	47.8	48.1	48.0	47.9	46.8	46.5	46.7	47.2
	20세 미만	7.3	6.9	6.7	7.7	8.1	8.2	7.7	6.7	7.9	8.4	8.4
	20~29세	59.6	59.1	58.0	58.3	58.7	59.3	59.3	57.8	57.9	57.8	58.6
	30~39세	54.8	54.7	52.7	53.7	53.7	54.1	54.9	52.1	52.9	53.2	53.3
	40~49세	64.7	64.7	64.1	64.2	64.9	64.4	63.9	63.7	63.1	64.1	64.0
	50~59세	54.8	56.3	56.2	56.9	57.7	52.7	54.6	55.1	55.6	55.9	57.3
	60세 이상	28.5	27.8	27.1	26.3	26.6	25.9	25.1	24.4	22.9	23.1	24.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요인분해

(단위: %)

	전 체				20대				20~25세 미만				25~30세 미만			
	취업 률	경황 률	인구 비중	고용 률	취업 률	경황 률	인구 비중	고용 률기 여도	취업 률	경황 률	인구 비중	고용 률기 여도	취업 률	경황 률	인구 비중	고용 률기 여도
2007	0.3	-0.0	-	48.9	1.4	-1.1	-2.7	10.4	2.0	-4.4	-6.1	4.2	0.7	1.0	0.3	6.3
2008	0.0	-0.5	-	48.7	-0.4	-0.3	-2.3	10.1	-1.0	-3.4	-3.1	3.8	-0.2	1.6	-1.7	6.3
2009	-0.4	-1.7	-	47.7	-0.6	-1.3	-2.7	9.6	-0.5	-2.8	-2.7	3.6	-0.7	-0.4	-2.8	6.0
2010	-0.3	0.6	-	47.8	-0.3	0.9	-3.3	9.4	-0.6	0.9	-2.1	3.6	-0.1	1.1	-4.3	5.8
2011	0.2	0.4	-	48.1	0.5	0.2	-3.2	9.1	1.2	-2.2	-0.7	3.5	0.0	2.3	-5.2	5.6
2007. 1~4	0.4	-0.1	-	48.0	1.3	-1.4	-2.9	10.5	1.7	-5.2	-6.8	4.2	0.8	1.1	0.6	6.2
2008. 1~4	0.1	-0.2	-	47.9	-0.2	0.1	-2.5	10.2	-0.1	-2.8	-4.2	4.0	-0.5	1.9	-1.0	6.3
2009. 1~4	-0.4	-2.0	-	46.8	-0.5	-2.1	-2.3	9.7	-0.3	-5.9	-2.4	3.6	-0.7	0.3	-2.2	6.1
2010. 1~4	-1.0	0.5	-	46.5	-1.6	1.9	-3.4	9.4	-2.6	2.7	-2.8	3.5	-0.9	1.5	-3.9	5.9
2011. 1~4	0.2	0.2	-	46.7	1.0	-1.2	-3.3	9.1	1.9	-2.5	-1.0	3.5	0.5	0.2	-5.1	5.6
2012. 1~4	0.3	0.8	-	47.2	-0.2	1.5	-3.2	8.9	-1.2	1.5	-0.1	3.5	0.5	2.2	-5.8	5.5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취업 률	경황 률	인구 비중	고용 률기 여도	취업 률	경황 률	인구 비중	고용 률기 여도	취업 률	경황 률	인구 비중	고용 률기 여도	취업 률	경황 률	인구 비중	고용 률기 여도
2007	-0.3	-0.2	-2.0	11.1	0.1	1.2	-0.5	13.2	-0.1	1.8	4.0	8.0	-0.0	1.7	1.6	5.6
2008	0.2	-0.4	-1.7	10.9	-0.1	0.1	-0.4	13.2	0.2	2.5	2.6	8.5	0.2	-2.8	2.2	5.5
2009	-0.5	-3.3	-2.1	10.3	-0.2	-0.7	-0.6	13.0	-0.4	0.1	3.8	8.8	-0.5	-1.9	2.2	5.5
2010	-0.0	1.9	-2.2	10.2	-0.4	0.6	-1.0	12.9	-0.1	1.4	4.5	9.3	-1.3	-1.9	2.3	5.5
2011	-0.3	0.3	-2.1	10.0	0.4	0.7	-1.0	12.9	0.1	1.4	4.0	9.8	0.3	1.0	2.5	5.7
2007. 1~4	-0.2	-0.9	-2.1	11.0	0.5	2.0	-0.4	13.2	0.1	0.6	4.5	7.6	-0.2	2.9	1.6	5.0
2008. 1~4	0.4	1.1	-1.8	11.0	-0.2	-0.7	-0.5	13.0	0.2	3.4	2.8	8.1	0.2	-3.4	2.1	5.0
2009. 1~4	-0.8	-4.4	-2.0	10.2	-0.1	-0.3	-0.4	12.9	-0.3	1.2	3.2	8.4	-0.2	-2.7	2.1	4.9
2010. 1~4	0.1	1.5	-2.3	10.2	-0.8	-0.1	-0.9	12.7	-0.4	1.3	4.6	8.9	-4.2	-2.0	2.3	4.7
2011. 1~4	-1.0	1.6	-2.1	10.0	0.4	1.2	-1.0	12.8	-0.1	0.8	4.2	9.3	1.5	-0.5	2.4	4.9
2012. 1~4	1.0	-0.7	-2.2	9.8	-0.1	-0.2	-1.0	12.6	0.4	2.0	3.5	9.9	0.1	6.6	3.0	5.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편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을 얘기할 때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혼인연령이 높아지면서 30대에 가사와 육아 등의 문제로 많은 여성들은 노동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여성 기혼자의 고용률은 2012년 4월까지 50.0%로 전년대비 증가했으나 이는 50세 이상 중고령층에서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30대 기혼 여성의 고용률을 보면 2011년 전년대비 0.5%p 하락, 2012년 4월까지는 전년동기대비 0.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대 기혼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여성의 혼인여부별, 연령별 고용률 추이

(단위: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2010	2011	2007. 1~4	2008. 1~4	2009. 1~4	2010. 1~4	2011. 1~4	2012. 1~4
미혼	전 체	48.4	47.6	46.3	47.1	47.7	48.6	48.0	46.3	46.9	47.1	47.6
	20세 미만	7.2	6.8	6.7	7.7	8.1	8.1	7.6	6.7	7.8	8.3	8.4
	20~29세	65.1	63.8	62.4	62.7	63.2	65.2	64.0	62.3	62.1	62.6	62.2
	30~39세	76.9	76.7	75.5	76.7	77.1	75.9	76.8	75.3	76.9	75.0	77.7
	40~49세	70.5	72.3	70.1	74.5	70.6	71.4	71.6	70.5	76.8	69.1	68.7
	50~59세	68.6	70.3	61.7	59.6	59.8	68.5	70.0	63.6	61.0	58.0	63.7
	60세 이상	47.1	42.0	34.6	25.7	19.6	25.3	42.3	35.8	24.4	22.6	26.3
기혼	전 체	51.5	51.5	50.7	50.7	51.0	50.2	50.4	49.5	49.2	49.5	50.0
	20세 미만	39.1	25.8	15.4	16.4	17.5	32.7	33.4	12.6	10.7	25.8	0.0
	20~29세	41.5	43.7	43.1	42.0	41.0	39.6	43.7	42.6	42.7	39.2	43.4
	30~39세	50.5	50.1	47.9	48.5	48.0	50.1	50.3	47.3	47.7	48.0	47.2
	40~49세	62.8	63.0	62.8	62.6	63.4	62.6	62.1	62.3	61.3	62.7	62.6
	50~59세	52.6	53.9	54.3	55.1	56.1	50.3	52.0	52.7	53.6	54.1	55.9
	60세 이상	33.9	32.7	32.2	30.9	31.2	30.6	28.9	28.7	26.6	27.0	28.1
30대 기혼 학력별	고졸 이하	50.5	50.1	47.9	48.5	48.0	50.1	50.3	47.3	47.7	48.0	47.2
	전문대졸	50.9	50.0	47.4	46.7	45.4	50.3	50.9	46.7	46.2	46.1	43.6
	대졸 이상	46.2	47.1	45.2	46.8	44.4	47.5	45.7	45.7	47.3	44.2	45.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 여성의 고용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50세 이상 중고령층의 고용구조

그렇다면 최근 여성 고용을 주도하고 있는 50세 이상 연령층에서의 일자리는 어떠한가? 50세 이상 여성 중고령층에서의 일자리는 주로 임시직과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의 창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50세 이상 여성 취업자를 대상으로 가구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구주의 배우자인 경우가 2012년 1/4분기 동안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보다는 임시직으로 채용되거나 도소매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한 창업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의 주소득원인 가구주의 은퇴, 미혼자녀의 교육, 미혼자녀의 미취업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경기지표보다도 체감하는 경기는 더 좋지 않아 이들이 불안정한 일자리라도 찾아 노동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시간제 일자리는 전년대비 917천 개 증가하여 세계금융위기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는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전년대비 383천 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2년 1/4분기 동안 30~40대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는 줄어든 반면, 고용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50세 이상 연령층의 여성에서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로의 채용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50세 이상 여성 중고령층의 종사상지위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2010	2011	2007. 1~4	2008. 1~4	2009. 1~4	2010. 1~4	2011. 1~4	2012. 1~4
전 체		146	108	89	130	186	142	112	87	90	156	257
지위별	임금근로자	111	99	141	165	131	96	108	91	159	134	180
	상용직	32	48	70	98	77	37	37	54	115	67	90
	임시직	73	49	83	77	50	69	61	31	74	48	121
	일용직	6	2	-12	-10	4	-10	10	5	-30	18	-31
	비임금근로자	35	9	-52	-35	55	46	4	-3	-69	22	77
	고용주	2	17	-2	-5	4	-0	20	2	-6	-0	18
	자영자	22	-15	-41	-11	31	22	-15	-26	-12	5	40
	무급가족종사자	12	7	-9	-20	20	24	-2	20	-51	17	19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71	49	-69	12	52	75	69	-48	-34	57	50
	배우자	81	59	150	119	127	66	49	132	117	95	198
	기타	-6	-1	7	-1	7	1	-7	4	7	3	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5>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2010	2011	2007. 1~4	2008. 1~4	2009. 1~4	2010. 1~4	2011. 1~4	2012. 1~4
시간제(36시간 미만)		108	184	-84	283	385	49	-65	169	658	-480	59
연령별	20세 미만	5	-4	4	10	6	2	-3	-6	17	6	1
	20~29세	34	35	-71	59	70	-0	-10	1	160	-150	3
	30~39세	17	24	-80	70	80	7	-37	-17	195	-156	-10
	40~49세	15	67	-4	58	73	27	-24	74	153	-135	-11
	50~59세	34	30	13	57	97	26	6	46	105	-39	18
	60세 이상	2	31	55	28	59	-13	3	70	26	-7	58
산업별	제조업	5	27	-41	22	46	4	-12	15	69	-87	-11
	서비스업	135	127	-58	276	297	96	-53	114	602	-368	63
	도소매업	8	8	18	33	43	-6	-15	42	86	-62	9
	음식숙박업	7	-1	5	26	25	-3	1	2	41	-10	14
	사업시설관리등	20	16	-13	25	27	13	5	8	43	-26	14
	공공부문	8	5	5	24	-2	9	-13	16	43	-37	13
	기타 서비스업	93	98	-74	168	204	83	-32	46	388	-233	14
	기타	-33	30	14	-15	41	-51	-0	41	-13	-25	7

주: 기타에는 농림어광업, 전기가스, 건설업이 포함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Ⅲ. 여성 중간임금계층의 변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고용이 2012년 4월까지 225천 명 증가했듯이 절대적인 규모로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사실만을 두고 여성의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여성의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여성의 일자리가 꽤 많은 일자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일자리의 질을 임금을 고려한 중간임금계층¹⁾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일자리의 변화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2011년 여성의 중간임금계층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36.5%로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고용사정이 악화되었던 2009년보다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임금계층의 비중은 2009년 대비 1.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군다나 여성의 고용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50대, 60세 이상 중고령층에서의 중간임금계층의 비중은 큰 폭으로 떨어져 2009년 대비 각각 4.1%p, 3.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을 통해 50세 이

<표 6> 여성의 중간임금계층의 고용비중 및 고용규모 변화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고용비중				고용규모		
		2009	2010	2011	'09~'11 비중변화	2009	2011	증감
여성 전체	하위임금계층	35.3	34.9	36.6	1.3	2,400	2,665	264
	중간임금계층	37.4	38.0	36.5	-0.9	2,541	2,653	112
	상위임금계층	27.3	27.1	26.9	-0.3	1,853	1,960	107
50대 여성	하위임금계층	57.7	56.8	62.3	4.6	579	776	197
	중간임금계층	30.6	31.5	26.5	-4.1	307	331	23
	상위임금계층	11.8	11.7	11.2	-0.5	118	140	22
60세 이상 여성	하위임금계층	79.5	80.0	83.5	4.0	342	407	64
	중간임금계층	16.6	17.0	12.9	-3.7	71	63	-8
	상위임금계층	4.0	3.0	3.6	-0.3	17	18	1

주: 농·임·어·광업을 제외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부가조사 원자료.

- 여기에서 중간임금계층은 농·임·어·광업을 제외한 전 산업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시간당 중위임금의 67~133% 수준을 차지하는 계층으로 정의함. 산업중분류·직종중분류 셀을 하나의 일자리로 보고, 이 일자리가 시간당 중위임금의 67~133% 수준을 차지하는 경우 중간임금계층으로 계산함.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준산업분류(9차 개정)와 표준직업분류(9차 개정) 중분류는 2008년부터 제공하고 있어 본고에서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변화만을 분석하고자 함.

상 중고령층의 일자리는 하위임금계층의 일자리가 고용증가를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여성의 고용은 주로 도소매·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산업과 여성 고용증가를 꾸준히 견인해 온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고용 변동폭이 컸다. 이들 산업에서 도소매·음식숙박업을 제외하고는 중간임금계층의 비중이 2009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의 여성 임금근로자의 중간임금계층은 세계금융위기 때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의 여성 임금근로자의 고용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50세 이상 중고령층에서의 고용은 증가하고 있다. 이들 산업에서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50세 이상 중고령층에서의 중간임금계층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여성의 고용변동이 큰 산업의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2007	2008	2009	2010	2011	2007. 1~4	2008. 1~4	2009. 1~4	2010. 1~4	2011. 1~4	2012. 1~4
전 체	120	48	-103	142	177	120	75	-136	65	155	225
제조업	-17	-37	-110	76	37	-34	11	-126	-1	86	-33
서비스업	155	112	66	121	150	167	81	30	161	79	277
도소매, 음식숙박업	-42	-30	-137	-44	-50	-68	-46	-92	-56	-89	27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	40	92	140	149	140	23	79	133	115	175	88
교육서비스업	21	29	42	-24	-70	46	24	11	60	-130	4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8> 여성의 고용 변동폭이 큰 산업별 중간임금계층의 고용비중 및 고용규모 변화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고용비중				고용규모		
		2009	2010	2011	'09~'11 비중변화	2009	2011	증감
제조업	하위임금계층	28.5	32.1	33.2	4.8	279	357	78
	중간임금계층	53.5	50.8	44.0	-9.6	524	473	-52
	상위임금계층	18.0	17.1	22.8	4.8	176	245	69
도소매, 음식숙박업	하위임금계층	72.1	70.7	69.6	-2.5	1,273	1,223	-50
	중간임금계층	26.0	28.0	27.8	1.8	459	488	29
	상위임금계층	1.9	1.3	2.6	0.7	34	46	12
보건업, 사회복지등	하위임금계층	3.5	6.4	24.9	21.4	26	255	229
	중간임금계층	94.4	88.3	73.9	-20.5	702	757	55
	상위임금계층	2.1	5.3	1.2	-0.9	16	13	-3
교육서비스업	하위임금계층	10.3	10.4	11.3	1.0	100	102	2
	중간임금계층	19.4	8.8	19.1	-0.3	188	173	-15
	상위임금계층	70.3	80.8	69.6	-0.7	683	630	-5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결과적으로 여성의 고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들의 일자리 속내를 들여다보면 괜찮은 일자리보다는 하위임금계층이 속해 있는 일자리가 늘고 있어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맺음말

최근 고용호조세는 경기의 흐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2년 경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 2012년 1/4분기 실적치 또한 예상보다 저조한 2.8% 상승에 머물렀다. 경기와 고용의 괴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고용률도 아직 세계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핵심계층인 30~40대 연령층의 고용률이 2012년(1~4월 평균) 정체되어 있는 반면, 50대 연령층의 고용률은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에 달해 있다. 고용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50대 여성의 일자리는 주로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의 임시직으로 채용되거나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한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50세 이상 중고령층에서 2012년 4월까지 보여준 한 가지 특징은 가계의 주요 소득원인 가구주가 있는 배우자의 고용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표로 보이는 경기보다도 더 좋지 않은 체감경기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임금을 고려한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 중간임금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고용이 좋지 않았던 2009년에 비해 하락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남성보다도 여성의 중간임금계층의 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또한 여성 고용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50세 이상 연령층에서의 중간임금계층 비중은 다른 연령대보다 더 컸으며 하위임금계층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여 이들 연령층에서의 일자리 양극화는 더 심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 고용의 증가는 괜찮은 일자리로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일자리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고용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한참 활동해야 할 30대 연령층에서 고학력 여성의 경력단절이 여전한 것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정책을 수립할 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KLI**

<부표 1> 여성의 연령별 고용증감 및 취업비중 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2010	2011	2007. 1~4	2008. 1~4	2009. 1~4	2010. 1~4	2011. 1~4	2012. 1~4
연령별 고용증감	전 체	119	48	-103	142	177	120	75	-136	65	156	225
	20세 미만	-6	-6	-1	17	7	-7	-5	-14	21	9	0
	20~29세	-32	-46	-73	-32	-28	-44	-35	-79	-39	-45	-15
	30~39세	-37	-22	-106	17	-22	-52	14	-136	8	-10	-15
	40~49세	48	14	-11	10	34	81	-11	6	-16	46	-2
	50~59세	102	102	80	127	130	90	114	85	118	111	142
	60세 이상	45	5	9	3	56	52	-3	2	-28	45	115
연령별 취업비중	20세 미만	1.1	1.1	1.1	1.2	1.3	1.3	1.2	1.1	1.3	1.4	1.3
	20~29세	21.3	20.8	20.2	19.6	19.0	21.9	21.3	20.8	20.3	19.5	18.9
	30~39세	22.7	22.4	21.5	21.4	20.8	23.0	23.0	21.9	21.8	21.4	20.7
	40~49세	27.0	27.0	27.2	26.9	26.8	27.5	27.2	27.6	27.3	27.3	26.7
	50~59세	16.4	17.4	18.4	19.4	20.3	15.9	16.9	18.1	19.2	20.0	21.0
	60세 이상	11.4	11.4	11.6	11.4	11.8	10.5	10.4	10.5	10.2	10.5	11.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